

〈250226 공통님 1차〉

Taken By: Nein Reglan & Rajesh Creighton

Written By: @BigWavee__

Play With: Kanaria, 『BRAIN』
Kedarui, 『ファミファミタル』



단언컨대, 네인 레글랜은 다소 오만했지만, 크게 모난 곳 없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네인 레글랜은 ‘남다름’과 ‘특별함’을 원하는 학생이었다. 성격은
무난했고, 남에게 먼저 다가갈 줄을 알았다. 첫인상은 딱 여기까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글썄…… 어디 나가서 정 맞지는 않겠다는 생
각과 괜히 설치다가 큰일 한번 내겠다는 생각이 공존하던 그 때의
기록이, 라제쉬에게는 남아 있었다.

결출한 인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생각만큼 특별한 존재는 아니
었고, 고만고만한 이들 중에서는 ‘보통’, ‘평범한’, ‘평균 45점에서
60점 사이’ 축에 낄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다소 풀이 죽은 듯 하
기는 했지만, 네인 레글랜은 그렇다고 남들을 괴롭히거나 부러 책
잡힐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금세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
도 나름 남의 눈치를 살핀 결과였을 것이다.

단언컨대, 라제쉬 크레이튼은 네인 레글랜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증할 수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특별해지고 싶다
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서 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누군가는 그것이 음악이고, 누군가는 미술이듯, 레글랜에게도 그
런 것이 하나쯤 있었을 뿐이다.



“내가 없으면 얼마나 곤란해질 것 같아?”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언젠가부터, 아니. 그렇게 덧붙일 필요도 없이 네인은 라제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리광을 부리듯 그렇게 질문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라제쉬의 대답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토대 위에 그날 그날 다르게 변주를 넣은 것에 불과했다. 기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느 상황에, 어떤 상태로 만나느냐에 달린 것이었으므로.

그러나 매우 안일한 대답이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증상을 잡을 뿐 원인은 치료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의. 하지만 네인 레글랜의 꺾뎀기를 뒤집어쓴 이 **크리쳐**에게 진짜 네인 레글랜가 살해당한 이후로, 그가 줄곧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었으므로 그리 틀린 말도 아니었다.

네인이 죽은 후로, 그는 줄곧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가치 같은 건 생각해본 적 없다거나,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거나——그런 나이브한 말로 스스로의 눈과 귀를 속였다.

“내가 없으면 곤란해질 것 같냐니까?”

“상황 보고.”

“에이,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야?”

라제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네인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지 못했을뿐더러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죄를 묻는다면 자신의 발언이 가질 파급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네인 레글랜이라는 존재 자체를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가장 큰 죄는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죄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그렇듯,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무언가 숨은 속내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도 했지만, 실제로 잠시 조준이 흐트러졌던 것도 있어 라제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가야, 혼자였으면 곤란했겠지. 그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다음이 문제였다.

“얼마나 곤란했겠어? 아까도 봐.”

“이것 봐, 이거. 너 혼자였으면 저런 거 보였겠어?”

“역시 나밖에 없지?”

언뜻 허장성세에 불과한 그 질문들은 오로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인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그건 콧대 높은 귀부인이 자신이 얼마나 남의 호의를 받아 마땅한지를 설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파이프렌치나 몽키스패너를 존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던가?

하지만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네인이 할 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문득 착잡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라제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것이 아무리 말끔하게 네인의 모습을 꾸며내고 있어도, 결국 본질은 한낱 크리쳐에 불과하다.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살해당하고 마는 별종(別種) 특유의 너저분한 생존본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통수권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야비하게 흉내 내는 악마……. 그것을 비참하고 구차한 생물이라고 단정하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다.

솔직히 거슬렸지만, 아주 싫기만 했느냐? 그렇지도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이(설령 그자의 껍데기일지라도…) 자신에게 입 안의 혀처럼 구는 것을 싫어할 수만은 없는 인간의 생태였다. 특히 좋으나 싫으나 장기적으로 오래 봐야만 하는 관계라면 더더욱.

(굳이 덧붙이자면, 의태한 크리쳐가 레글랜의 모습으로 당당하고 뻔뻔하게 지냈다면 그쪽이 더 싫었을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자기 ‘쓸모’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질문 자체에 대

한 답은 쉬웠다. **저 네인은 인간이 아니니까.** 자신이 있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공들여 가며. 그러니 작전 도중 일으키는 크고 작은 문제들쯤은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 줄 수 있었다. 일부러 위험에 빠진 척 했다가 멀쩡히 돌아오거나, 준비해야 할 것을 빼먹는 것 정도는 그래도 뒤처리가 쉬운 편이었을뿐더러, 어느 정도는 자기가 수습을 할 생각이었던 모양이니까.

“어때? 완벽했지?”

“그건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벌어진 일의 뒷수습을 잘하는 것도 평가 요인이지 않아?”

……그 모든 문장들이 가리키는 것은, 비록 그 과정에서 몇 번 고성이가 오가기는 했지만——라제쉬는 네인의 그런 뻔뻔한 핑계들도 어느 정도 견뎌줄 만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고 싶었던 네인이 본부까지 들쭉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라제쉬**, 저 녀석 좀 어떻게 해봐. 뭘 열심히 하려는 것까지는 안 막겠는데 의욕만 앞서니까 자꾸 사고를 내잖아. 이번 일은 나까지 시말서를 써야 할 판이라고. 그래도 말은 잘 들으니까 네가 좀 잘 타일러봐.”

부서진 장비를 수습하던 연구원이 이제 질렸다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한 팀이었고, 네인의 잘못이 파트너를 잘 챙기지 못한 죄를 추궁하려는 의도 외에도 다양한 연유로 라제쉬에게 인계되는 것은 당연했지만, 라제쉬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너 또 뭐 했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야, 들고 있는 거 내려놔!” 변명 않던 네인이 자신의 실수에 어설픈 이유를 갖다 붙

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라제쉬의 입에 완전히 달라붙은 말이었다. 어디선가 그의 노성이 들리는 순간 기겁하며 도망다니는 푸른 뒤통수를 보면서, 라제쉬는 이쪽도 싫기는 피차일반이라고 속으로 뇌까렸다. 이게 무슨 찻찻거리는 개 입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인 어디 갔어?”

“나야 모르지. 또 도망간 거 아냐?”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겨우 가라앉히고, 훈련장 밖으로 걸음을 옮기던 라제쉬는 숨어있던 자색 눈동자와 딱 마주치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네인——!”



“어라,” 그것이 본부 측 연구원들이 단체로 내원하기 전에 들은 마지막 목소리였다.

네인 레글랜은 억지로 연구직들을 데려다가 가벼운 신체검사와 측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엔 꽤 지쳐있었기도 했고, 더 이상 라제쉬에게 혼이 나는 것이 내심 두려웠던 결과였다. 투입 초창기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수치로 증명하는 것 정도는 몹시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여 방심한 네인이 결국 훈련장 하나를 모조리 잡아먹었을 때, 결국 라제쉬의 안에서 인내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닥 나고 말았다.

“그냥 가만히 있어!” 라제쉬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시키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네인,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라제쉬는 네인의 어깨를 붙잡고 채근하듯 흔들었다. 그가 유별난 악의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빈말로라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본심이 아닌 것도 언어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말의 속성은 비단이나 꽃이 아닌 못이다.

“나는 인간이었잖아! 지금은 그, 조금 애매해지긴 했지만…….”

“네가?”

라제쉬는 가소롭다는 듯이 혀를 찼다. 기가 죽어 쭈뼛거리기는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 않는 눈빛이. 그 뻔뻔스러운 태도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다.

휴가 중인 네글랜을 죽이고 얼굴을 훔쳐 의태한 생물. 자신의 계획을, 사랑을 망쳐버린 장본인. 그런 주제에 왜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인지, 그런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라제쉬는 종종 눈 앞에 있는 크리처의 머리통을 쪼개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그… 내가 기여를 하면 좋지 않아? 너도 너무 그러지 말고…….”

“태평하기는!”

군대라는 조직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명예? 희생? 상명하복? 아니다. 군대는 효율을 제 1위로 중시한다. 명예도 희생도 상명하복도, 그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모든 군인에게 충을 지급하는 것보다 앞서 죽은 이군의 시체에서 충을 빼앗아 다음 군인이 돌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인간에게 호의적이라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그 효율적인 명령만 없었더라면 저것을 제 손으로 사살했으리라. 분노를 삼키고 노여움을 삭이며, 증오의 마음도 모래성이 허물어지듯 흐트러졌을 즈음, 라제쉬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평행우주라는 것들 중 하나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짜증스러운 것을 자신이 쏘죽인 세계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에이, 그래도 이번에는 본부 안에서 낸 사고니까…….”

임무 도중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상관없었다. 결국 어떻게든 자기가 수습을 할 요량으로 저지른 일이니까. 하지만 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달랐다. 누군가는 차라리 후자 쪽이 더 안전하고 수습하기도 편하지 않겠냐고 묻겠지만, 그것은 라제쉬가 네인을 언제든지 내다버릴 수 있다는 전제 안에서나 성립되는 것이었다.

라제쉬는 네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못하는 것에 가깝지만.) 라제쉬의 네인을 향한 평가는 더없이 객관적이었지만, 그에 대한 태도나 생각은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효율을 중시하는 본부에서는 언제, 어떻게 네인을 판단할지 알 수 없었다.

네인을 처분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약 네인이 처분당하지 않더라도, 상부로부터 **‘라제쉬와 네인은 한 팀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온다면 그것 또한 낭패였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자신의 시야에 넣어두고자 하는 철저함이나 불안도 분명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필시 버리지 못하는 미련의 조각이 남아있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보름 정도가 흐르기 전.

네인은 기체 사이, 성인 남자 한 명이 몸을 구기면 겨우 들어갈 듯한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쉬지 않고 내달린 탓에 심장이 가파르게 뛰었다.

그는 좀처럼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마주 잡고 비비다가 손각지를 켜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라제쉬의 화가 풀릴 때쯤에 슬그머니 나갈 생각이었건만. 웬지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그는 분노나 증오보다 무관심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또래의 인간들보다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의, 사람을 향한 고유한 감정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족적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가정이 없다는 것은, 그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라제쉬가 자신을 못 본 채하는 것보다는 성을 내고 소리라도 지르는 것이 좋았다.

가짜에는 진짜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가짜는 진짜보다 압도적으로 가치가 있다.

종종 그렇게 청승을 떨고 있을 때면, 익숙한 목소리가 자신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야, 빨리 나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는 날 선 목소리로 다정한 말을 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었다.



뒤따라오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한두 번 무시했지만 목소리는 포기할 줄을 몰랐다. 외투 소매에 달라붙은 꼬리표처럼 끈덕지게 달라붙는 물음에 라제쉬는 결국 표정을 가다듬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없어서 곤란했어?”

익숙한 얼굴이었다. 앞으로 영영 사랑할 수 없을. 하지만 영원히 기억할. 그래,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은 천국이나 극락에 가더라도 이것과 함께 떨어져볼 생각이다.

“……당연하지.”

<참고 자료>

—니시오 이신, 『가짜 이야기 偽物語』(2008)

—서정주, 『내 늙은 아내에게』

© 2024 @BigWavee__ all rights reserved.